

아그립바왕을 전도하는 바울

찬양해요

찬송가 52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사도행전 26:24-32

-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 28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말씀 이해하기

베스도는 자기를 위한 변론의 시간에 자기 방어는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하며 아그립바왕에게 선지자를 믿는지 묻습니다. 대답이 궁색해진 아그립바는 바울이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복음 증거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바울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자신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로 풀려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자리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워봅시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24절)?

▶ 바울아 내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 계속되는 바울의 변론에 아그립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28절)?

▶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3. 어느 자리에서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복음 증거는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원활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소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었지만 병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경험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이번 한 주간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가족과 나눠 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복음에 예비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